

# “강한 2군” 野王, 야생 호랑이 조련

## 한대화 KIA 2군 총괄코치가 만드는 ‘화수분 야구’

“기본기의 야구, 강한 2군을 만들겠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한대화 2군 총괄코치가 KIA ‘화수분 야구’의 중심에 서었다.

KIA는 2013시즌을 앞두고 대폭적인 2군 정비로 나섰다. 15명의 선수를 방출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고, 한대화 전 한화 감독을 2군 총괄코치로 불러들이며 새판을 짰다.

강한 1군의 바탕은 강한 2군이라는 것이 KIA의 생각이다.

한 총괄코치는 동국대 감독과 한화 감독을 지내며 아마와 프로에서의 지도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KIA의 사령탑 선동열 감독과는 삼성 시절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추며 우승에 함께 하기도 했다.

‘경험과 소통’이라는 장점을 통해 KIA의 약점으로 꼽혀온 2군 강화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스럼없이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훈련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

한 총괄코치는 “탄탄한 팀이 되기 위해서 선수 육성이 잘 되어야 한다. 선수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이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가능성 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선수들이 보인다. 이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팀 전력이나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데렐라’ 탄생을 위해 강조하는 것은 성실함과 기본기이다. 특히 기본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한 총괄코치는 “팀에 와서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가다듬고 있다”며 “기본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 타격만 보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인데 기본적인 캐치볼이 되지 않아 기초부터 다시 지도하고 있다. 공을 던지는 게 기본이고 즐

## 학생에 가까운 어린선수들

### 성실함·기본기 중점 지도

### 2월엔 중국 전지훈련 떠나

거위 해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 선수들이 똑기라든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새 출발에 나선 2군에게 올 시즌은 기회의 시간이다. 경험 있는 지도자를 통해 기회를 약속받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KIA가 200억원을 투입해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에 짓고 있는 전용훈련장의 클럽하우스 완공이 임박하면서 4월부터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한 총괄코치는 “아직 프로가 아니라 학생에 가까운 어린 선수들이 많다. 그만큼 진짜 프로선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걸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며 “미국 캠프에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

## 한대화 KIA 2군 총괄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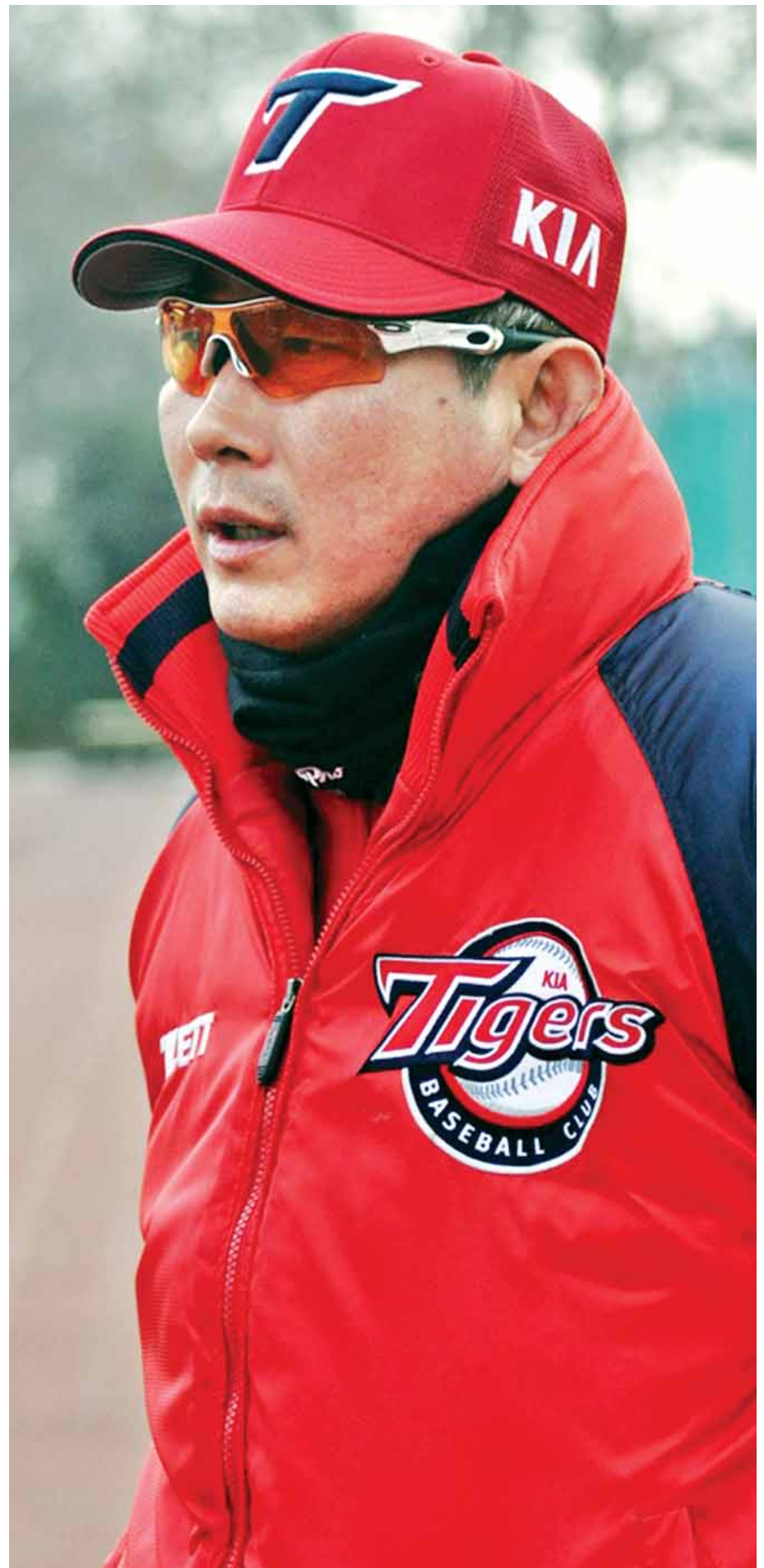
- 1982 세계야구선수권 결승 역전 3점 홈런
- 1983년 OB베어스 입단
- 1986~1992 해태타이거즈
- 1988 프로야구 올스타전 MVP
- 1990년 타격왕(0.335)
- 1986~1991 골든글러브 7회 수상
- 골든글러브 최다수상(8회) 타이
- 1998년~2003년 동국대 야구부 감독
- 2004~2009 삼성라이온즈 코치
- 2009~2012 한화이글스 감독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수단 파악을 끝낸 한 총괄코치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조련에 들어간다.

한 총괄코치는 오는 31일 28명의 선수들을 이끌고 운남성 징흥으로 향해, 2월27일까지 화수분 야구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친정팀 유니폼으로 같이입은 한대화 KIA 2군 총괄코치가 28일 광주 보건대 운동장에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임창용 “캡스 뒷문 내가 책임진다”

## 스프링캠프 참가 출국

### “후지카와와 경쟁 자신”

광주진흥고 출신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37)이 28일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지난해말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1+1년, 최대 500만 달러(약 54억원)를 받는 조건에 계약한 임창용은 미국 도착과 동시에 컵스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애리조나주 메사의 호호캄파크로 이동해 재합에 들어갔다.

그는 2012년 7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수술했다. 임창용이 상반기 내내 시간을 보낼 재활센터는 호호캄파크 안에 있다.

임창용은 “최대한 빨리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를 수 있도록 재활에 구슬땀을 흘리겠다”며 “빅리그에 오르면 마무리 보직을 꿰찰 수 있도록 팀 내 선수들과 경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중요하다”며 2014년 풀타임으로 컵스의 뒷문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통산 296세이브를 거둔 임창용은 4개만 보태면 300세이브 고지를 밟는다. 임창용은 일본 시절 구원왕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오른손 정통파 소방수 후지카와와 규지와 컵스에서 한솥밥을 먹는 다.

임창용은 후지카와와 팀내 마무리를 놓고

경쟁하거나 나란히 컵스의 필승조로 활약할 전망이다.

임창용이 빅리그 마운드에 오르면 이상훈(43·전 SK), 구대성(44·시드니 블루삭스), 박찬호(40)에 이어 4번째로 한국·미국·일본을 거친 선수가 된다. 1995년 프로야구 해태에서 데뷔해 삼성을 거쳐 2007년까지 한국에서 뛰 임창용은 13년간 104승66패, 168세이브를 올렸다.

2008년 야쿠르트와 계약하고 해외에 진출한 그는 데뷔해부터 ‘뺨 직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9년 역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랜 선정 올스타에 뽑힌 임창용은 야쿠르트에서 5년간 11승13패 128세이브, 평균자책점 2.09라는 눈부신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 이상화 ‘거침없는 질주’

## 세계스프린트 스케이팅 선수권

### 500m 1위 탈환 ... 종합 동메달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500m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또 1000m에서는 이를 연속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속질주를 거듭하며 대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는 28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500m 2차 레이스에서 36초99만에 결승선을 통과, 티스에 오네마(네덜란드·37초06)와 왕웨이싱(중국·37초23)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날 37초28의 기록으로 2위에 올라 올 시즌 처음으로 이 종목 1위를 놓친 이상화는 이날 기록을 끌어올리며 정상에 탈환했다.

21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6차 대회 당시 작성한 세계 신기록(36초80)을 깨지는 못했으나 통산 2번째로 36초대를 달리며 물오른 컨디션을 자랑했다.

이상화는 첫 100m를 10초40만에 통과, 전날과 마찬가지로 초반 레이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반 이후 가속도를 붙이면서 좋은 기록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기세를 탄 이상화는 이어진 1000m 2차 레이스에서는 1분14초19만에 결승선을 통과, 전날 자신이 작성한 한국기록(1분14초39)을 다시 0.2초 앞당겼다.

/연합뉴스



이상화(24·서울시청)가 28일 500m 레이스에서 36초99를 기록,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우슈를 광주시민의 생활체육으로”

## 김상덕 신임 광주우슈협회장



“우슈(武術)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이는 등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9일 취임하는 김상덕(57·진한통상 대표이사) 광주시 우슈협회 신임 회장은 “우슈는 다양한 중국 전통무술을 현대적 스포츠로 규정화시켜 신체단련과 함께 품성과 예절 등 심신수양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관전(觀戰)체육이 아닌 시민이 함께 운동하는 참여체육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는 3월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우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임원진과 선수·코치·감독이 합심해 10월 예정인 인천 전국체전 우수종목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우슈협회는 지난 2008년 전남 전국체전 2위, 2012년 대구 전국체전 3위 등 총 6차례에 걸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 우슈협회는 지난 1990년 9월 창립했으며 현재 선수 20여명과 회원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주류서비스**  
-성인1만원,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1천 원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